**Text, application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드림 DREAAM"을 실현하다**

트레이시 데이스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일리노이 주 샴페인으로 이사하여 일리노이 대학에서 특수 교육 박사과정을 막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은 한 공동체에 끌렸고 결국 한 미국장로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

트레이시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교화시설, 카운티 교도소에서 일하는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과 친해졌다.

"이 소년들과 젊은이들은 똑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잠재력과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나는 연속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그들의 삶을 탈선시킬 수 있는 문제 행동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습 기술을 강화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빈곤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DREAAM'의 시작이었습니다"

[DREAAM](http://dreaamhouse.squarespace.com/) -이것은 Driven to Reach Excell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Males 의 약자이다. 이 이름은 트레이시가 고안해냈다. 이는 위험에 처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에게 투자하고 그들 및 그 가족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대상 연령은 5세에서 24세이다.

미국장로교의 2013년 '빅 텐트' 행사에 참여한 후, 트레이시의 비전과 사역은 일치를 이루기 시작했다.

"우리 신앙과 교단에 대한 더 큰 부르심을 발견한 것은 '빅 텐트' 행사에서였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현대적이고 다문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았고, 인종 문제에 있어서 정의를 북돋우고 미국장로교 신앙 안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지도자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더 큰 규모의 교회에는 내가 참여할 수 있겠다고 느꼈고, 이것이 제가 지역별 특색을 지닌 교회들을 더 좋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트레이시는 'DREAMM'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를 퍼스트 장로교회의 선교 위원회에 전달했다. 데이스의 발표를 듣고서, 이 교회는 교단의 더 큰 목표와 그의 계획을 연계했다. 특히 그의 아이디어는 현재 미국 장로교의 [마태복음 25장](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 이니셔티브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종잣돈을 마련해 그를 지원했다.

'DREAAM'은 [성령강림절 특별헌금](https://specialofferings.pcusa.org/offering/pentecost/)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는다.오순절 헌금의 40 퍼센트는 지역 사역을 하는 교회에 되돌아간다. 나머지 60퍼센트는 장로교 선교국의 사역을 통해서 위기에 놓인 어린이, 청년, 젊은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다.

성령강림절 헌금의 선물은 실제로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일 쁜 아니라 우리의 현재입니다"라고 장로교 자기 개발 위원회의 코디네이터인 알론조 존슨 (Alonzo Johnson) 목사가 말했다. "젊은이를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져야할 의무입니다. 교회가 젊은이에게 중요한 곳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정말 그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튼튼한 기초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적극적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인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의 집에 모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해주십시오.* ***아멘****.*